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법무부, 브라질과의 반트러스트 협력협정에 서명

Janet Reno 법무장관은 10월 26일 브라질과의 반트러스트 협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양국의 반트러스트 당국들은 상호간의 법집행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협정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 Robert Pitofsky 위원장과 브라질 Jos Carlos Dias도 서명하였는데, 브라질 국회의 인준이 있을 후에 발효하게 된다.

브라질은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서 1998년 국내총생산은 7,500억달러이다. 더욱이 브라질은 서반구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뒤이은 3위의 미국 수출시장이다.

Janet Reno 장관은 "이 새로운 협정은 미국과 브라질 반트러스트 당국간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조치이다. 이는 양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용될 중요한 정책도구

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새로운 협정은 집행상 협력 및 조정,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집행조치에 대한 통지, 집행조치와 관련한 충돌 회피 및 협의, 효과적인 비밀보호 조문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조문은 협력 향상의 건전한 근거를 제공하며, 양국의 반트러스트 집행활동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최소화하게 된다. 우리는 건전한 반트러스트 집행이 미국 및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우선과제인 현 시점에서 브라질 당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새로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국은 반트러스트 집행 일반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이 상호간 이익이 됨을 인정한다. 협력 노력에 관하여 양국은 기존의 비밀보호 규정에 일치하는 한도에서 반트러스트 관련정보 교환에 합의한다.
-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 규정에서, 각국은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내용의 자국의 관할 내에서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하

여 적절한 반트러스트 집행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타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 각국은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반트러스트 집행조치에 대하여 상대국에 통지한다. 반트러스트 집행조치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국은 상대국의 중대한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또한 본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요청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다.
- 각국은 상대국에서 규정된 민감한 정보의 보호조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Klein 국장은 "우리는 브라질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omica(CADE) 의장인 Gesner Oliveira 및 다른 브라질 반트러스트 관리들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전문가적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장래에 더욱 발전되고 상호 유익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본 협정은 발효되더라도 양국의 기존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1994년 국제 반트러스트집행 원조법(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 of 1994)에 의해 인가되는 포괄적 반트러스트 사법공조협정이 아니다.

■'99. 10. 26, 미국 법무부 보도

**미 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업체라고 판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1월 5일, 빌 게이츠의 당해 소프트웨어 제국이 독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업체들의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이러한 독점력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로 인해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Thomas Penfield Jackson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핵심제품 중 어느 하나와의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고수하는 어떠한 기업든지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자사의 막대한 시장력과 엄청난 이윤을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07페이지에 달하는 당해 사실관계 판결은 최종적 판결은 아니나 당해 사건에서의 정부측 입장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먼저 화해하지 않을 경우 동 기업은 당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된다.

그러나 당해 반트러스트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당해 사건에서의 최종

적 판결과 형벌은 내년 초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항소가 있게 되면 당해 사건의 판결은 수년간 지체될 수도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당해 재판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PC 운영체제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 및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Jackson 판사는 사실관계 판결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정부를 자극하여 이들이 의견차이를 법원 밖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비자 모두에 공정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당해 판결이 있는 5일에 언급하였다.

워싱턴 주 Redmond의 기자회견장에서 세계 최대 부호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잘못을 범한 적이 없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워싱턴 D.C.에서는 확신에 찬 Joel I.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이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커넥티컷 주 법무장관인 Richard Blumenthal은 커넥티컷 주를 포함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한 19개 주는 Jackson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였다.

이는 "매우 결정적이고 강력한 판결로서 독점력을 남용하여 온 약탈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진지하고 광범한 교정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Blumenthal은 언급하였다.

역사적인 이번 판결은 정보화시대를 급속히 변혁시키고 있는 기술의 핵심에 관계되어 있다. 매사추세츠주 Cambridge에 소재한 Forrester Research사에 따르면 거의 4,000만의 미국 가정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웹브라우저나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전자렌지나 팩스기와 같이 흔한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법무부 소속 법률가들은 1890년 서민법에 기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기소하였는데, 이 법은 독점력의 보유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한 독점의 유지를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하고 있다. 당해 법률은 미국내 거대 기업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었는데, 이 중에는 금세기 초의 Standard Oil사가 포함된다.

1984년 AT&T Corp.의 분할 이후 최대의 기업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재판은 1998년 10월 19일 개시되었으며 수개월간의 논쟁을 거친 후 9월에 심리가 종료되었다.

법무부와 19개 주 및 워싱턴 D.C.는 PC의 90%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지배력을 다른 제품에게까지 확대하고 넷스케이프사와 같은 경쟁업체를 패배시키기 위해 자사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재판과정에서 이메일, 메모 및 다른 사업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타격을 입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Jackson 판사는 사실관계 판결에서 줄곧 인용하였다.

빌 게이츠는 5일, 자신은 당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지지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혁신능력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단 한가지는 우리가 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때때로 마이크로소프트사 광고에 출연한 듯이 말하면서, 빌 게이츠는 자사가 급변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여야 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이 산업 중 어느 누구도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

판결은 주식시장이 마감된 뒤 발표되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식은 4.81달러 하락한 86.7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5%가 조금 넘는 하락폭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화해를 논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 최소한 법적 절차의 진행에 1년 내지 2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버지니아 주 Rossllyn에 소재한 프루덴셜 증권사의 분석가인 Jim Lucier는 말하였다.

최종 화해는 아마도 지불액수에 초

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Lucier는 언급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금전적 형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과거에 혁신의 자유가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해 사건에서의 화해를 쾌히 수락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거액의 화해금을 받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태를 규제할 권한을 얻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고 Lucier는 말하였다.

정부는 1998년 5월 당해 기업을 상대로 논란거리가 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소프트웨어가 당해 기업의 지배력을 다른 제품으로 위법하게 확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반트러스트 소송에 700만 달러를 지출한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넷스케이프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약탈적 행위에 종사하였다고 하였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및 월트 디즈니사와 같은 콘텐츠 개발업체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를 전적으로 홍보하는 대가로 이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웹 브라우저를 자사의 운영체제에 "연계시켜"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별개의 제품이었던 것을 함께 써야 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ackson 판사는 당해 기업이 "브라우저를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이용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그는 많

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른 기업에 이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배포 및 홍보하는 대가로 가치있는 이익 -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 을 제공하였으며, 이 결과 때때로 명시적으로 내비게이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마케팅 기법을 통해 소비자들을 강제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컴퓨터의 기능을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Jackson 판사는 판결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브라우저에 관심이 없는 윈도우즈 98 사용자들을 강제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보유하는 데 관련된 모든 부담을 시스템에 지우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 업체가 잠재적으로 자사와 거의 동일한 시장력을 가진 경쟁업체들 - 아메리카 온라인(AOL)사,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 - 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서는 시장지배력은 신속히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있었던 AOL사의 100억달러 이상의 규모인 넷스케이프사 취득을 지적하였다. 동 업체는 또한 리눅스와 같은 대체적 컴퓨터 운영체제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윈도우즈에 대한 존속가능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Jackson 판사는 사실관계 판결에서 이러한 개념을 배제하였으

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용 운영체제 제품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업성 있는 대안이 부재하여 온 상황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하였다.

자사 직원들의 증언에 거의 의존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재판과정동안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지난 5월 당해 회사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윈도우즈 95와 연계함으로써 정부와의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5일 공표된 판결에서 정부는 하나의 법률적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독점업체임을 Jackson 판사에게 납득시켰으며, 이로써 당해 업체의 행위가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판결될 장을 열어놓은 것이다.

■ '99. 11. 6, Los Angeles Times

**Honeywell-Allied
기업결합,
자산매각을 조건으로 허용될 듯**

미국 법무부는 AlliedSignal Inc.와 Honeywell Inc.에 대하여, 160억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한 정부 인가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들이 항공전자공학 사업부문의 주요 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은 상업용 항공기, 우

주 및 미국 방위산업부문에 대한 항공전자공학 및 첨단기술분야의 주요 공급업체이다. 정부는 원안대로의 기업결합 제안은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제품가격의 상승 및 품질 저하를 결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동국은 법원이 인가할 경우 정부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게 될 내용이 담긴 이들 회사와의 합의도 접수시켰다.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4개 생산라인 각각에서 주요 경쟁업체들은 둘 내지 셋만 남게 될 것이며, 이들은 협조하에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트러스트국은 밝혔다. 이들 생산라인은 교통경보 및 충돌회피 시스템, 탐색 및 조망용 기상레이더, 반동 및 모멘텀 회전바퀴 및 관성 시스템이다.

교통경보 및 충돌회피 시스템은 위협을 식별하고 조종사에게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공중에서의 항공기 충돌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항공전자공학제품이다. 탐색 및 조망용 기상레이더는 구조작업시에 종종 헬리콥터에서 사용되는데, 악천후를 예측하며 조종사로 하여금 악천후시에 보트나 유전 시추장치와 같은 작은 물체들을 발견하게끔 해 준다.

반동 및 모멘텀 회전바퀴는 공전을 위한 힘을 위성 자체를 돌려 발생시킴으로써 위성을 움직이고 안정화시킨다. 관성 시스템은 물체의 위치 및 방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물체의 속도, 놓여 있는 장소 및 회전율을 측

정한다. 극소 전자기계 시스템(MEMS), 광섬유 회전의(FOGs), 링레이저 회전의(RLGs) 및 기계속도 회전의(MRGs) 등을 포함한 정밀부품과 기술이 관성 시스템에 사용된다.

정부와의 화해안에서 AlliedSignal사는 캔사스 주 Olathe에 소재한 탐색 및 조망용 기상레이더 사업부문, 뉴저지 주 Teterboro에 소재하고 있으며 RLGs, FOGs, 반동 및 모멘텀 회전바퀴를 생산하고 있는 우주항공 및 항해사업부문, 커넥티컷 주 Cheshire에 소재한 MRG 사업부문과 오하이오 주 Newark에 소재한 관련 수리사업부문, 워싱턴 주 Redmond에 소재한 MEMS 사업부문과 관련 MEMS 라이선스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Honeywell사는 애리조나 주 Glendale에 소재한 교통경보 및 충돌회피 시스템 사업부문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으면 상업용 항공기, 우주 및 미국 방위산업 부문의 고객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첨단 항공전자공학제품들의 가격 인상, 그리고 차세대 제품 제조에 필요한 혁신의 감소에 직면하였을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밝혔다.

AlliedSignal사는 뉴저지 주 Morris-Otow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항공우주공학제품 및 서비스, 자동차 관련 제품, 화학제품, 섬유, 플라스틱 및 첨단재료를 생산하는 첨단기술 제조업체이다. 1998년의 매출액은 150억달러였다.

Honeywell사는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첨단기술 통제작

비 및 기타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를 가정 및 빌딩, 산업계, 우주 및 항공전자공학분야의 고객들을 위해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1998년의 매출액은 84억달러였다.

■ '99. 11. 8, The New York Times

E U

유럽위원회, 캐나다 항공시간 기업결합 조사

유럽위원회는 10월 18일, Onex Corp.의 Air Canada 및 Canadian Airlines 취득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항공운수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EU 경쟁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런던과 캐나다 공항들간의 장거리 노선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EU로부터 당해 기업결합 인가를 얻기 위해, 이 항공사들은 혼잡한 히드로 공항의 이착륙대 일부를 양도하고 운항편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EU 집행당국은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현재 두 주요 캐나다 항공사가 운항중인 런던과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및 켈거리 사이의 노선은 동일한 회사가 지배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는 또한 Oneworld 제휴가 영국과 캐나다 사이의 직항노선에 취항하는 유일한 항공사 그룹이 됨을 의미할 것이다.

"항공시간 제휴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휴가 완전한 경쟁상태에 있을 때만 여행자들의 편의가 공정한 가격으로 얻어질 것이다"라고 경쟁담당위원인 Mario Monti는 언급하였다.

캐나다는 영국과 양자간 정부협정을 체결하여 British Airways와 위의 두 캐나다 항공사만이 캐나다와 히드로 공항간 직항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경쟁업체들이 이로 인해 히드로 공항에서의 이착륙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기업결합 제안 중 일부는 이미 BA와 Canadian Airlines가 포함되어 있는 Oneworld 항공시간 제휴에 Air Canada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Onex사의 계획을 담고 있다. Air Canada는 현재 United Airlines와 루프트한자가 속해 있으며 Oneworld와는 경쟁관계인 Star 제휴의 회원사이다.

EU의 조사는 4개월이 걸릴 것이며, 이는 현재 항공기 음식조달업에서 활동중이고 지난 8월에 Air Canada에 대해 18억캐나다달러(12억 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제안을 행한 바 있는 거대기업인 Onex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Air Canada는 아마도 19일에 대응 인수제안을 낼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Onex사의 인수제안은 현재 Onex사가 취득하게 될 Canadian Airlines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American Airlines의 모회사인 AMR Corp.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AMR사가 결합대상 기업의 소액주주 지분을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과거에 몇몇 항공시간 기업결합이나 합작투자사업을 인가할 때 이착륙대를 포기하도록 강제해 바 있다. 최근 동 위원회는 KLM 및 Alitalia에 대하여 이들간 합작투자사업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이착륙대를 경쟁업체에 양도하고 운항편수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또한 British Airways 및 American Airlines에 대해 이들간 제휴의 인가 조건으로 267개의 이착륙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해 제휴는 이후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었다.

Onex사의 Air Canada 인수제안은 캐나다 내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몇몇 정치가들은 경쟁당국의 전적인 조사 및 당해 기업결합 인가 이전의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Onex사는 18일, EU의 조사는 Air Canada의 주주들이 당해 기업결합 제안에 대해 투표하기로 되어 있는 11월 8일의 주총 개최시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 회사는 캐나다와 유럽간 항공여행에서 히드로 공항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경쟁 관점에서의 검토를 예상하였었고 이미 이를 작업계획표에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Onex사의 사장인 Nigel Wright는 "우리는 유럽위원회의 검토에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

다"고 언급했다.

■'99. 10. 19, Financial Times

**EU, 160억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제조업체간
기업결합 조사**

유럽위원회는 이번 주에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인 Alcan사, Pechiney사 및 Alusuisse사간의 165억 유로화(105억 7,000만파운드)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해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할, APA사로 알려진 이 기업이 유럽에서 갖게 될 거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예비적 검토에서 전면적 조사로 이행하기로 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당해 기업결합은 지연될 수도 있다. 8월에 당해 기업결합이 발표되었을 때 관련기업들은 6개월내에 기업결합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6억달러(370만파운드) 이상 비용이 절감된다고 추정하였다.

기업들은 동 위원회의 2단계 조사를 받게 되면 EU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산매각과 같은 양보에 동의하여야만 하게 되어 있다.

Alcan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기업결합 이후의 회사를 이끌게 될 Jacques Bougie는 당해 기업결합 발표시에 관련기업들은 규제당국과 관련하여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얻

었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경쟁당국 관리들은 기업결합 이후 탄생할 기업이 EU내에서 압연판제품에 대해 갖게 될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APA사는 미국의 Alcoa사에 뒤이어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제조업체가 된다. Alcoa사는 3개 기업의 결합이 발표된 때와 같은 주에 Reynolds Metals사에 대한 56억달러 규모의 인수에 합의한 바 있다.

동 기업은 유럽 내의 캔 제조용 평판 알루미늄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이다. 상기 3개 기업은 동 위원회의 기업결합 담당부서에 대해 자신들의 시장점유율과 캔 제조에 사용되는 평판 강철 시장규모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기 알루미늄 시장에서의 통합이 완성되면 2개의 대기기업이 유럽내 압연 평판금속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결합에 관련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거대 고객들이 기업결합을 완성하였으므로, 자신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세계 캔의 85% 정도가 5대 그룹에서 제조되고 있다.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해 기업결합을 환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Alcoa사와 경쟁관계인 공급업체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JP Morgan 런던사무소의 분석가인 Emil Morfett는 말하였다.

■'99. 11. 9,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미 석유메이저들의
기업결합계획 인가**

공정취인위원회는 10월 18일, 국제 석유자본(메이저)인 미국 엑슨사와 미국 모빌사의 기업결합계획에 관하여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는 없다"라는 심사결과를 양사에 통지하였다. 이를 받아 양사의 산하에 있는 일본의 석유도매회사인 엑슨 석유, 모빌석유, 제네럴석유는 기업결합을 포함한 경영통합에 관하여 검토 작업을 본격화한다. 엑슨사와 모빌사의 기업결합에 대하여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심사중이어서, 각사는 "FTC의 판단이 내려지면 정식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들 3개사에 더하여 엑슨사와 모빌사가 25%씩 출자한 도넨(東燃) 계열의 키그나스석유도 합류하여 거대한 외자대연합이 근래에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엑슨석유, 모빌석유, 제네럴석유 3사의 경영형태는 모회사인 엑슨, 모빌 양사의 의향에 크게 좌우되나, 관리부문을 일체화하여 업무를 통합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엑슨사 계열인 엑슨석유와 제네럴석유는 이미 관리, 영업, 재무기획, 물류 등 주요 4개 부문의 업무를 일체화하고 있으며, 이에 모빌석유가 추

가되어 한층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계열 주유소는 오랜 기간 각각의 브랜드를 내걸고 경영하여 왔기 때문에 브랜드를 일체화하는 것은 어려운 관계로, 복수의 브랜드를 남겨 두게 될 듯하다. 또한 업무통합에 의한 합리화정책으로서 대폭적인 인원 삭감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효율화 등에서 앞서가는 미국 석유회사계열의 대연합 형성이 일본계 석유도매업체들에 영향을 줄 것은 필지의 사실로서, 업계재편의 움직임 한 단계 가속시킬 것 같다.

공취위에 따르면 엑스그룹과 모빌그룹을 합친 가솔린 등 석유제품의 국내판매 점유율은 20% 미만으로, 최대인 닛세키미츠비시(日石三菱)의 약 25%에 뒤이어 2위가 된다.

공취위는 국내시장에서는 닛세키비츠비시 및 다른 석유회사 계열 일본법인 등 유력한 경쟁업체가 복수 존재하고 있는 외에, 1996년에 「특정 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이 폐지되어 상사 등에 의한 석유제품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양사가 기업결합하더라도 일본내 석유관련시장의 경쟁은 저해되지 않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의 심사는 올해 1월에 시행된 개정독금법에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듯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외국기업끼리의 기업결합이더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어받아 행하여진 것으로, 대형 기업결합으로서는 첫번째 경우이다.

■'99. 10. 19,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독금법개정안 골격 - 중지소송 등 피해자구제 확충

공정취위위원회는 10월 22일,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기업이 법원에 직접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 등 신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금법개정안의 골격을 확정하였다. 대상은 부당염매, 공동의 거래거절행위, 끼워팔기 등의 행위이다. 인원이 적은 공취위의 역할을 법원이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완화에 수반하여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처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피해자구제를 충실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취위는 법무성 등과 협의하여 2000년 3월까지 결론을 정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금법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충실화는 공취위의 「민사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회」(의장 고조 마코토(古城誠) 조치(上智)대 교수)가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현재는 독금법상 위반행위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취위와 상담하는 제도밖에 없다. 공취위는 직원이 적어 대형안건에 시간을 빼앗기므로, 피해자 구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중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면 민사소송에서의 폭넓은 대응이 가능해지고,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높아진다고 공취위는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는 부당염매 외에 ① 제조업체의 소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강제, ② 하도급기업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③ 특정 기업에 대한 공동의 거절 등 독금법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예를 들면 부당염매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동업자 등 피해자는 일정가격 이하로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기업에 한정된다. 위반행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소비자단체 및 업계단체가 다른 피해자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청구는 장래의 검토과제로 되어 있다.

독금법상의 손해배상제도도 확충된다. 현재는 기업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에 사업자단체도 추가, 가격카르텔 등의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쟁제한으로 이어질 기업결합 등은 공취위가 실패를 파악하여 방지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독금법 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재판은 지금까지 도쿄 고등법원에서만 다루고 있다. 법개정으로 삿포로와 오사카 등 다른 7개 고등법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99. 10. 23,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세가 본사 등 현장조사**

게임기 제조대기업인 「세가 엔터프라이즈」(본사 도쿄 오타(大田)구)의 판매자회사가 거래선인 소매점에 대하여 주력상품인 가정용 게임기 「드림캐스트」의 판매가격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구속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정취임위원회는 11월 10일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혐의로 세가 엔터프라이즈 본사 및 판매자회사인 「세가 뮤즈」(미나토(港)구) 등 약 30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가 뮤즈사는 드

림캐스트가 발매된 1998년 11월 이후 게임기 본체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전국 소매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가격을 지시하거나 중고품의 취급, 전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였고, 소매점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등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드림캐스트는 일본에서 1998년 11월에 29,800엔에 발매, 타사의 게임기에는 없는 인터넷접속기능으로 차별화를 도모하였으며, 실재인물인 「유카와(湯川)전무」를 기용한 텔레비전 CM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생산공정상 어려움에 따른 출하지체가 영향을 미쳐 판매가가 예상을 밑돌아, 금년 6월 하순에 가격을 19,900엔으로

인하, 반격을 도모하고 있으며, 누계 판매대수는 약 160만대이다. 라이벌인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CSE)사의 「플레이스테이션」 및 닌텐도사의 「NINTENDO 64」와 격렬한 판매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세가 엔터프라이즈사는 영업용 게임기 최대기업으로, 가정용 게임기에서는 제2위이다. 1999년 3월 분기의 연결경상이익은 약 72억엔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가 엔터프라이즈사의 홍보실은 “공취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조사의 내용 등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 '99. 11. 10, 요미우리신문

트러스트 Trust 기업합동이라고 함. 동일산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함. 이러한 트러스트는 기업간 합병이나, 주식의 수탁·매수 등을 통해 의결권을 획득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행동을 취하면서 기업간의 경쟁을 배제하여 초과이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트러스트를 통제하고 있음. 트러스트는 금융적 결합형태인 콘체론과 구별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콘체론보다 직접적임. 또한 법률상 독립한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한 연합체인 카르텔보다 결합력이 강한 것이 특색임.